

<http://dx.doi.org/10.18649/jkees.2015.14.3.139>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발음 수행이 영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류혜선** · 정현성***

서울고산초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Ryu, Hyeseon & Chung, Hyunsong (2015). The effec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performance on their English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3), 139-160.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nglish pronunciation performance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English self-concept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 total of 74 sixth grade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pronunciation performance. It was reveal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and their self-concept. Furthermor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English self-concept between the lower and other level groups. In addition, the different English test scores of all groups were very significa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lementary students' English self-concept and their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could be boosted by improving their English pronunciation performance.

[pronunciation performance/English self-concept/academic self-concept/
발음 수행/영어자아개념/학문적 자아개념]

I. 서론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일부 외국어 학습자들은 정확하지 못한 발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써 외국인과의 대화를 자신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기도 한다(양병곤, 2004). E. Horwitz, M. Horwitz와 Cope(1985)는 영어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류혜선(2015)을 확대·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발음이 영어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발음이 좋지 않은 학습자는 영어로 말하기를 연습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장벽이 구축되어, 영어 학습에 저항하여 침묵하게 된다. 반면, 발음을 성공적으로 배운 학습자들은 동급생들의 감탄이나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 계속되는 학습에 성공하게 된다. 발음에 대한 자아상(self-image)이 학습 향상을 위한 동기나 자신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Yoshida(2013)는 학습자의 과거 언어 학습 경험이 그들의 언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며, 특별히 학습 초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언어 자아개념과 관계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 단계 영어 학습자인 초등학생들의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의 발음 수행과 관련하여 영어 자아개념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수행이 그들의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발음 수행 수준이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의 관계를 통해 초등학교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어 교실 현장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발음 교육의 중요성

제2언어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의 영향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음 습관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Cook, 1996). Morley(1998)는 발음이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enkins(2000) 역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긋나게 하는 주요 요인을 발음이라고 보았다. 발음은 문법, 작문, 독해, 어휘 등 영어의 다른 분야와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습득의 최적 시기가 가장 빨라서 화석화 현상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것과 모국어의 전이 현상이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윤여범, 2002). 따라서 처음 영어 발음을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학습자의 발음에는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단계(threshold level)가 존재하므로, 아무리 문법, 어휘 부분이 뛰어나더라도 이러한 단계를 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Hinofotis & Bailey, 1980). 의사소통 교육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이해가능성은 최근 발음 관련 연구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교육 목표이자 평가 기준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발음 능

력인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목표이자 평가 가능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erwing & Munro, 2005).

세계화와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숙련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휘나 문법 분야뿐만 아니라 좋은 발음에 대한 숙련도까지 의미하는 것이다(Lord, 2008). Murphy(1991)는 외국인 학습자는 발음 교육을 통해 영어의 소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통제력을 갖게 되어야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발음은 말하기, 듣기와 함께 구두 의사소통의 한 요소로 간주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Morley(1991)는 발음에 기초한 듣기 연습이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Avery와 Ehrlich(1992)는 규칙적인 조음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발음 수행과 말하기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Thomson과 Derwing(2015)는 발음 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발음 요소에 대한 명시적 교육이 자연스러운 노출에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Lee, Jang과 Plonsky(2015)의 메타분석에서는 장시간의 발음 처치와 피드백 제시, 통제적 출력을 통한 발음 교육이 다른 요소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 교수의 초점이 언어 기능에서 의사소통능력으로 옮겨 가면서 새롭게 발음 지도의 절박함이 대두되고 있다(Celce-Murcia, 1987; Morley,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교육에서 발음과 관련한 연구는 영어 학습의 다른 분야 즉 어휘나 문법에 비해 현재까지도 여전히 적은 편이다(Derwing & Munro, 2005).

2. 언어 학습과 자아개념

언어, 수학, 과학 같은 구체적인 교과에서의 학문 자아개념은 학문적 성취와의 정적 상관관계로 인해 교육 심리 분야뿐만 아니라 제2언어 학습 분야에 있어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Wang, 2013). 또한 학습 동기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언어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자아개념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Csizér & Magid, 2014). 언어 학습에서 이러한 자아개념은 정체성 및 자아상, 자기 주도, 학문 자아개념, 가능한 자아, 자아효능감, 학습 불안, 의사소통 의지 등을 다 포함하며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다양한 자아구성체와 관련한 연구들의 바탕은 크게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동기적 자아체계(motivation self system)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늘날 자아개념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한 Shavelson, Hubner와 Stanton(1976)은 자아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이다...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지각은 그가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또한 행동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자아개념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7가지의 특성은 ‘조직된, 다면적인, 위계적인, 안정적인, 발달적인, 평가적인, 구별 가능한’ 등으로 표현된다. (p. 411)

또한 Shavelson과 Stanton(2010)은, 자아개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정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각은 환경 내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특히 환경적 강화와 중요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반영하고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한다(Brigham, 1986).

따라서 언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언어 학습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언어 학습에 관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영어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에게 교수 활동을 넘어, 그 이상의 교육 활동과 예측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Erten & Burden, 2014).

3.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최근 수 십 년간 많은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학업 성취를 이끌어 내는 것인지 반대로 성공적인 학업 수행 결과가 자아개념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적 우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Calsyn & Kenny, 1977; Newman, 1984; Skaalvik & Hagtvet, 1990; Chapman & Tunmer, 1997; Harter, 1999).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하나는 자아개념이 학업 성취를 이끌어 낸다는 자아 향상(self-enhancement)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학업 수행의 결과가 자아개념을 이끌어 낸다는 기술 발달(skill-development)모델이다. 최근에는 이 두 모델을 다 수용하는 ‘상호 효과 모델(reciprocal effects model)’이 보다 현실적인 절충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arsh & Yeung, 1997).

Helmke(1987)과 Newman(1984)은 학업 수행 결과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며, Skaalvik과 Hagtvet(1990)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학업 수행 결과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더 미치는 기술 발달 모델이 자아 향상 모델보다 원인적 우월성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Marsh와 Yeung(1997)은 수학, 과학, 영어 세 과목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원인적 우월성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수학, 과학은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를 이끌어 내는데 비해, 영어 과목에서는 학업 수행의 결과가 자아개념보다 원인적 우월성이 더 있다고 하였다. 기술 발달 모델에 따르면 성공적인 발음 수행의 결과가 영어 자아개념 형성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들의 발음 수행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발달 모델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 특히 중요한 발음 수행이 영어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자아개념에 있어서 발음 수행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 연구

SLA 분야에서 자아구성체에 관한 연구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체성과 같은 각기 다른 자아 관련 구성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Henry, 2009; Morita, 2004). 그러나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본질과 발달을 알아보는 데 깊이 초점 맞추어진 연구는 아직 드물다(Mercer, 2011a; Pellegrino, 2005). 영어 학습자들의 자아개념 연구는 학습 과정에서 영어 자아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이 학습자들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주로 연구되었다(Mercer, 2011a, 2011b; Williams & Burden, 1999).

최근에 와서 학습동기와 관련된 자아구성체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Dörnyei(2009)의 L2 동기 자아체계이다. Ushioda(2011a)는 가능한 미래 자아를 위한 수단으로써, 현재의 경험과 미래 방향에 관한 동기와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 자아의 관점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한 자아와 L2동기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의 동기를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진정한 가능한 자아(possible self)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자아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shioda, 2011b).

언어 학습자들의 외국어 자아개념의 발달 및 그 본질을 탐구한 Mercer(2011a)는 자아개념이 특정 과제나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외국어 학습 전반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언어 학습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외국어 학습자들의 자아개념이 안정적인 부분과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복합체라고 밝혔다.

Wang(2013)은 영어 자아개념과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연구를 통해서 영어 자아개념 및 발음 자아개념과 타인의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발견했다. Tang, Zhang, Li와 Zhao(2013)는 발음 자아개념과 발음 수행,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과 영어 교실 불안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음 수행 점수가 영어 자아개념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Sardegna, Lee와 Kusey(2014)는 704명의 한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발음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43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 정도를 답하게 하는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43개 발음 항목이 4개의 동기 요소(통합적, 내재적, 외재적 동기 및 호기심)와 4개의 태도 요소(인지적, 능동적 태도 및 부정적 정서 및 자기효능감)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FL학습자로서 중국어 화자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발음 자아개념이 영향을 밝힌 연구(Pan, 2003), 언어 자아개념, 발음 자아개념과 영어교실 불안과의 관계

에 관한 연구(Zhu, 2005), 영어 발음 자아개념과 발음 수행을 살펴 본 연구(Wang, 2004)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발음이 영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와 기술 발달 모델 이론을 따르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자아개념의 역할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발음 수행의 결과가 영어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음 수행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었으며 국내 초등학교 영어 발음 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M초등학교 6학년 3학급 전체 76명중에서 영어 문장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학생 1명과 특수 학급의 학생 1명을 실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74명(남33, 여41)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이 74.3%였으며 외국 거주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특성상 영어 문장을 전혀 읽을 수 없어서 실험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의 학생 외 전원에게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회신문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문 자아개념 및 영어 자아개념 검사지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교실에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하였으며, 발음 녹음은 설문을 끝낸 후 방음이 잘되는 방송실에서 프랏(Pra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 명씩 녹음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발음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발음 녹음용 검사지와 학문 자아개념 및 영어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발음 수행 평가를 위한 발화 녹음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6학년 교과서 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장을 위주로 읽기 문장을 선택하였다.

실험 문장은 가능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돕기 위해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안내문에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최대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만 제시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실험 문장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림 옆에 실험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실험 문장은 참고한 후 읽기 보다는 말을 하듯이 발화하도록 하였다. 그림과 함께 제시한 실험 문장은

단문 10개와 짧은 지문 읽기 2개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성하여 분절음뿐만 아니라 억양 및 리듬 등과 같은 초분절음 요소까지 발음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녹음을 위한 읽기 문항 구성

분류	항목 유형	문항수	측정내용
그림을 보면서 단문 읽기	/f/와 /p/	10	의사소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해가능성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정확성 및 자연스러움)
	/θ/와 /ð/		
	/l/과 /r/		
	/ʃ/와 /ʒ/		
	평서문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나열하는 문장		
지문 읽기	명령문	2	
	비교문		
지문 읽기	자기 소개글	2	
	일기글		

일반적으로 영어 발음을 평가할 때, 발화 측면에서는 주로 정확성을 측정하고 있지만 지각 측면에서는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정현성, 2009).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해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다음의 <표 2>와 같이 다섯 척도로 구분하였다.

표 2
발음의 평가

정확성					자연스러움				
1	2	3	4	5	1	2	3	4	5
1(very bad), 2(bad), 3(moderate), 4(good), 5(excellent)									
◆정확성: 분절음(개별음소와 음운 변화)과 초분절음(강세, 음조, 억양, 리듬 등)									
◆자연스러움(유창성) 머뭇거림 없이 자신 있게 읽기									

일반적으로 영어 발음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판단하는 것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영역에 속하므로(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 사재진, 2008), 녹음된 발음 수행 자료의 평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3명에게 의뢰하였으며, 다음 <표 3>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녹음된 발음을 듣고 1점에서 5점까지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정확성은 개별 발음의 정확성과 억양에 중점을, 자연스러움은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머뭇거림 없이 자신 있게 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것을 평가도구인 캘빈(kalvin) 프로

그럼 안내에 설명하였다.

표 3
발음 평가 기준

점수	평가 기준
5	발음에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발음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없거나 가끔 있다.
3	발음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에 다소 지장을 준다.
2	발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	말을 알아듣기 힘들고 단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

음성 지각 소프트웨어인 앨빈(alvin)의 한국어 버전 캘빈(kalvin) 프로그램은 평가자가 학생들의 발음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Tcl이라는 스크립트 언어로 통제할 수 있는 영문판 alvin.exe는 West Michigan 대학의 Hillenbrand(2014)가 제작하였고, 한글로 된 캘빈은 발음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양병곤(2004)이 기존 영어 버전의 메뉴를 한글화하여 제작한 것이다. 캘빈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원어민의 표준 발음을 들려주고 따라하도록 하거나 단어를 듣고 녹음 저장하기, 단어 듣고 적기, 자음/모음 선택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각 폴더에 담긴 녹음 파일이 학생의 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들려지므로 평가자가 한 학생의 여러 문장을 계속 듣는데서 올 수 있는 평가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발음 평가의 처음과 마지막 채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서 오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 3명의 원어민 평가자에게 폴더의 순서를 달리한 3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원어민 평가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듣고 사전에 안내된 발음 채점 기준에 따라 Very bad(1점), Bad(2점), Moderate(3점), Good(4점), Excellent(5점) 척도를 클릭하여 점수를 채점하였다. 평가가 끝나면 주 메뉴에서 결과 보기를 하여 각 학생의 녹음 파일별 획득한 점수를 볼 수가 있다.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음 수행 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 13명(18%), 중 49(66%)명, 하 12(16%)명으로 나누었다.

초등학생 학습자를 위한 학문 자아개념 및 영어 자아개념 판단용 검사지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문 자아개념 문항은 코리안 테스트 센터에서 발행한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지 중 학문 자아개념 20문항을 발췌하여 초등학생들의 학문 자아개념 측정에 사용한 심완익(2013)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영어 자아개념 문항은 자아개념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Marsh(1990)의 ASDQ II(Academic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I)에 나오는 외국어 자아개념 문항을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용어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수학이나 과학 자아개념 문항도구는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것들이 많으나 영어 자아개념을 검사하는 문항은 송인섭(2013)의 영재아동과 관련된 학문 자아개념의 위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영어 자아개념 측정하

기 위해 ASDQⅡ를 사용한 문항 외에 많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해 ASDQⅡ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아개념 검사지는 영어교육 전문가 1인과 초등영어교육 석사과정 1인의 자문을 통해 원래의 의미 및 한국어 의미에 맞게 수정 작업을 거쳤다. 또한 실험 대상 학생의 인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 검증 후 다시 수정하였다. 검사 문항은 영어 교과 외 교과 전반에 대한 자기 평가로 이루어진 학문 자아개념 문항(20)과 영어 교과에 대한 영어 자아개념(30) 문항, 개방형 문항(4),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trein(1993)은 학문 자아개념의 구성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평가적이고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잘한다) 설명적이다. 둘째, 주로 태도보다는 학문적 능력(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검사지도 ‘나는 ~다.’라는 자기 기술적인 표현을 영역별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하였다. 검사지의 형식은 Likert식 4단계로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4점이 가장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뜻하고, 1점이 가장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낸다. 역산을 해야 하는 문항은 자료 수집 및 통계처리 시 역산을 하였다.

영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평가 형식으로 의사소통기능 요소들을 고루 포함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추어 출제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문항분석 및 가설 검증을 위해서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발음 평가를 위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급내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영어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각요인회전인 베리맥스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 및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집단별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발음 수행 측정을 위한 평가자간 신뢰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 발음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대상 학생들의 발화 녹음 자료를 세 명의 평가자를 통해 평가하였고, 각 평가자간 점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검정의 급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3명의 평가자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 명을 제

외하고 본 분석에서는 2명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평가를 따로 나누어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정확성은 94.3% 일치하였고, 자연스러움은 87.3% 일치하였다. 정확성과 자연스러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p=0.000$), Nunnally(1978)에 따라 응용 연구 기준인 .9 이상의 신뢰도가 나온 정확성에 대한 발음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영어 자아개념과의 관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정확성은 분절음 뿐 아니라 초분절음의 정확성까지 포함하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학문 자아개념과 영어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요인회전 방식의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해 주성분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 각 항목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해 내적일관성을 알아보았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 검정은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강병서, 김계수, 2009). 학문 자아개념과 영어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들의 KMO 값은 .849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에서도 구형성 검증치 $\chi^2=4075.559$ 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적합한 공통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치가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0.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강병서, 김계수, 2009),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 적재치 .5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먼저 추출된 각 요인과 다른 의미를 갖는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분 1은 고유값 25.73, 분산 53.59%로 직접적인 영어 학습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의 문항으로 묶여 '영어 자아개념'으로 명명하였고, 성분 2는 고유값 4.17, 분산 8.69%로 영어 과목 이외 다른 교과 전반에서의 자아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묶여 '일반적 학문 자아개념'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요인은 전체 누적 분산 62.28%로 설명력 약 62%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48개 문항이 .98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학문 자아개념과, 영어 자아개념 모두 .94와 .98로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자아개념 요인에 대한 좀 더 세부적 분석을 위해 영어 자아개념 요인만 재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요인 분석 실시 결과, 표본의 적절성은 KMO=.920,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 $\chi^2=2041.740$ 으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

들의 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 적재치 .50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과 다른 의미를 갖는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성분1은 고유값 16.18, 분산 67.40%로 구체적인 영어 학습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의 문항으로 묶여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으로 명명하였고, 성분2는 고유값 1.20, 분산 4.99%로 전체적인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 문항들로 묶여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요인은 전체 누적분산 72.39%로 설명력 약 72%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 .95,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 .97로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초등학생들의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발음 수행은 ‘excellent’ 5점, ‘good’ 4점, ‘moderate’ 3점, ‘bad’ 2점, ‘very bad’ 1점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평균 3.15로 ‘보통(moderate)’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전체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학문 자아개념은 평균 2.8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에 대한 영어 자아개념 중 일반적,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은 각각 2.61점, 2.62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발음 수행과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

	발음수행	학문 자아개념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	학업 성취도
발음수행	1				
학문자아개념	.244*	1			
일반적 영어자아개념	.516**	.679**	1		
구체적 영어자아개념	.505**	.674**	.865**	1	
학업성취도	.681**	.329**	.479**	.429**	1

p<.01**

발음 수행은 일반적 학문 자아개념과도 $r=.244(p<.05)$ 로 관계가 있으나, 영어 자아개념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편이다. 반면 발음 수행과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과의 상관계수는 $r=.516(p<.01)$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여러 교과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 학문 자아개념보다 영어 자아개념과 발음 수행

의 상관관계가 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보여, 발음 수행이 좋을수록 영어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문 자아개념과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r=.679(p<.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과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 간에도 $r=.865(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 수행은 영어 자아개념의 두 개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r=.516, p<.01$)이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r=.505, p<.01$) 보다 약간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영어 발음 수행이 높을수록 영어에 대한 일반적 자아개념, 구체적 자아개념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발음 수행과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은 영어 자아개념과의 상관성보다 좀 더 깊었다. 발음 수행과 학업성취도는 $r=.681(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 학업성취도와 학문 자아개념과의 상관계수는 $r=.329(p<.01)$ 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 ($r=.479, p<.01$)과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r=.429, p<.01$)과의 상관관계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발음 수행이 좋은 학생일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발음 수행 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발음 수행 수준별 상, 중, 하 집단을 정규분포를 따라 이상적으로 나누었다.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발음 수행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학문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영어 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9.72, p<.001$).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집단별 영어 자아개념은 발음 수행이 상인 집단이 3.0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중 집단 2.65점, 하 집단 1.9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72, p<.001$).

발음 수행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의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F=9.17, p<.001$)과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F=9.7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세 집단 중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음 수행 상, 중 집단의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과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동일 집단군으로 나타났으나 상, 중 집단과 하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별 학업성취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F=25.06$, $p<.001$)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더니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도는 상, 중, 하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발음 수행이 상 집단 학생들은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 13중 1명이 어렵다라고 대답하고, 12명 모두 쉽다 또는 재미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답을 한 반면, 하 집단 학생들은 반대로 12명 중 11명이 어렵다, 싫다, 불안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1명이 중요하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자신의 영어 공부에 대한 예상을 해보라는 질문에 상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잘할 것이다. 더 잘하면 좋겠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반면, 하 집단 학생들은 잘하면 좋겠다 4명, 기초부터 다시 해야할 것 같다 1명, 못할 것이다 6명으로 자신의 학업에 대한 예상 기대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읽을 때와 말할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에서 상 집단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18%의 학생들이 자신있다 또는 재미있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 외 82%의 학생들이 창피하다, 불안하다, 틀릴까 걱정된다 등의 느낌을 대답하였고, 그 중 10%가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대답을 하였다.

영어 공부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라는 질문에 발음이 상 집단의 학생 중에서 자신의 발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발음으로 교정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는 질문에 문법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고 유학을 갈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등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중 집단이나 하 집단보다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실험 결과, 발음 수행은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발음 수행은 일반적 학문 자아개념과도 $r=.244(p<.05)$ 로 관계가 있으나 영어 자아개념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과의 상관계수는 $r=.516(p<.01)$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발음 수행은 영어 자아개념의 두 개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r=.516$, $p<.001$)이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r=.505$, $p<.001$) 보다 약간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영어 발음 수행을 잘 할수록 영어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자아개념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음 수행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 형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통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밝히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상호 효과 모델에 따르면 영어 학습에서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음 수행이 영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다양한 영어 학습 환경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이 발음 수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업 수행의 결과가 자아개념을 이끌어 낸다는 기술 발달 모델(Skaalvik & Hagtvet, 1990)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주로 음성 언어 중심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영어 학습 뿐 아니라 학업 수행의 평가 및 결과까지도 대부분 발음에 의존해야 하는 영어 학습 환경을 감안할 때 영어 자아개념이 발음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발음 수행이 영어 자아개념 형성에 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발음이 영어 자아개념 형성에 원인적 우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발음 수행 상, 중, 하 집단의 일반적 영어 자아개념($F=9.17, p<.001$)과 구체적 영어 자아개념($F=9.76, p<.001$)은 모두 영어 발음 수행이 상인 집단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중 집단, 하 집단이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에서는 상, 중 집단이 하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 집단과 중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발음 수행 상, 중 집단의 영어 자아개념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개방형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상 집단의 학생 중에서 원어민의 발음 평가 점수가 높음에도 자신의 발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발음으로 교정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서 중 집단의 학생들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낸 데 비해, 중 집단의 학생들은 실제로 받은 점수보다 자신의 발음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적 높게 나타냈다. 즉 발음 점수 상 집단은 중 집단보다 영어 학습에 대한 더 높은 기대로 인해 인지적 정서적 자기 평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반대로 중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발음 수행 상 집단의 영어 자아개념이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발음 수행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은 영어 자아개념과의 상관성보다 좀 더 깊었다. 발음 수행은 학업성취도와 $r=.681(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음 수행이 좋은 학생일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발음 수행 수준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며($F=25.06, p<.001$) 사후 검정에서 상, 중, 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음 수행 수준별 영

어 자아개념이 상, 중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달리, 발음 수행의 차이가 집단별 학업성취도 결과에 모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특성상, 음성 언어 중심의 평가가 많아서 발음 수행은 학업성취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음 수행 능력은 학업성취도 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학생들의 자기 지각인 영어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결국 발음 수행 능력이 영어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실한 발음 수행과 낮은 영어 자아개념이 학습 동기의 저하 및 이상적 자아를 상실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 학생들일수록 학업 수행의 결과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기술 발달 모델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발음 수행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발음 수행은 초등학교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읽을 때와 말할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에서 상 집단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8%의 학생들만이 자신있다 또는 재미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즉 발음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발음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할 때, 그들의 발음 습득 상태와 발음 수행 수준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적절한 보충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수행은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발음 수행 수준 상, 중, 하 집단별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발음 수행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보다 높은 영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영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발음 수행의 결과는 영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준다. 다시 말해서, 발음 수행의 차이는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교생들에게 있어서 발음 수행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발음 학습의 최적 시기인 초등학교 시절에 보다 올바른 발음을 습득하도록 격려하며, 발음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영어 학습에서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영어 발음과 관련한 음성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방법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발음 교육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가장 소외받는 부분이었다. 최근 최수진과 이윤(2015)은 음소 지도가 초등학교의 영어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음성학적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발음 교육을 하는 교사가 드문 실정이며, 영어 교과에서도 발음교육에 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안희정, 정현성, 2008). 의사소통 능력 중심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발음 교육 역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함께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나, 이제는 더 나아가 학습자들의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의 관계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다른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어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을 초등학교 영어 학습 상황에 맞게 듣기, 말하기, 읽기, 발음 부분으로 제한하여 문법이나 쓰기와 관련된 영어 자아개념 전체를 살펴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발음 수행과 영어 자아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 연구와 영어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의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발음 교육의 초점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초기 영어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를 위해 개별 학생 수준에 적합한 발음 교육에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아직 그 형성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 집단의 학생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낮은 영어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어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 발음 수행 향상을 통한 영어 자아개념 변화와 학업성취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음 수행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한정시켜서 진행하였으나 발음 수행은 학습 동기 및 불안 등과 같이 정의적 영역과도 관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발음 수행에 따라 학습 동기와 불안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면 영어 학습 초기의 학생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으며, 향후 영어 학습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발음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감을 갖추고 학습자들의 자아개념 형성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발음 지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 (2009).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심완익. (2013). *초등학교 과학에서 인지적, 정의적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류혜선. (2015). *초등학생의 발음 수행 능력 수준에 따른 영어 자아개념 (self-concept)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송인섭. (2013). 영재아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자아개념의 위계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2(2), 5-27.
- 안희정, 정현성. (2008). 영어동화 듣기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영어 발음 교육 방안. *영어교과교육*, 7(2), 175-195.
- 양병근. (2004). 외국어 발음 교육과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kalvin 활용. *사대논문집*, 43, 1-14.
- 윤여범. (2002). *초등영어 발음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정현성. (2009).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리듬구현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1), 141-149.
- 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 사재진. (200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음 정확성 자동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언어와언어학*, 42, 165-196.
- 최수진, 이윤. (2015). 반복 읽기에서 음소 지도가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과교육*, 14(1), 135-154.
- Avery, P., &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igham, J. (1986). *Social psychology*. Boston: Little, Brown & Co.
- Calsyn, R., & Kenny, D. (1977). Self-concept of ability and perceived evaluation by others: Cause or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36-145.
- Celce-Murcia, M. (1987). Teaching pronunciation as communication. In J. Morley (Ed.), *Current perspectives on pronunciation* (pp. 5-12). TESOL: Washington D.C.
- Chapman, J. W., & Tunmer, W. E.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beginning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279-291.
- Cook, V. (1996).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Arnold.
- Csizér, K., & Magid, M. (2014). *The impact of self-concept on language learning*.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Derwing, T. M., & Munro, M. J. (2005). Second language accent and pronunciation teaching: A research-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39, 379-398.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Erten, İ. H., & Burden, R. L.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concept, attributions, and L2 achievement. *System*, 42, 391-401.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Helmke, A. (1987). *Mediating processes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 of ability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Munich,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ogical Research.
- Henry, A. (2009). Gender differences in compulsory school pupils' L2 self-concepts: A longitudinal study. *System*, 37(2), 177-193.
- Hillenbrand, J. M. (2014). *James M. Hillenbrand*. Retrieved June 1, 2014, from the World Wide Web: <http://homepages.wmich.edu/~hillenbr/>
- Hinofotis, F., & Bailey, K. M. (1980). American undergraduates' reactions to the communication skills of foreign teaching assistants. In J. C. Fisher, M. A. Clarke, & J. Schachter (Eds.), *On TESOL '80* (pp. 120-135). Alexandria, VA: TESOL.
-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A. (1985).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Modern Language Journal*, 2, 125-132.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 Jang, J., & Plonsky, L. (2015). The effectiveness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instruction: A meta-analysis. *Applied Linguistics*, 36(3), 345-366.
- Lord, G. (2008). Podcasting communities and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Foreign Language Annuals*, 41, 374-389.
- Marsh, H. W. (1990).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The Marsh /Shavelson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623-636.
- Marsh, H. W., & Yeung, A. S. (1997). Casual effects of academic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International Psychology*, 89, 41-54.
- Mercer, S. (2011a). Language learner self-concept: Complexity, continuity and change. *System*, 39(3), 335-346.
- Mercer, S. (2011b). *Towards an understanding of language learner self concept*. London: Springer.
- Morita, N. (2004). Negotiating participation and identity in second language academic communities. *TESOL Quarterly*, 38(4), 573-603.
- Morley, J. (1991). The pronunciation component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 other languages. *TESOL Quarterly*, 25(3), 481-520.
- Morley, J. (1994). A multidimensional curriculum design for speech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J. Morley (Ed.), *Pronunciation pedagogy and theory: New views, new directions* (pp. 45-56). Alexandria, VA: TESOL Publications.
- Morley, J. (1998). Trippingly on the tongue: Putting serious speech/pronunciation instruction back in the TESOL equation. *ESL Magazine*, January/February, 20-23.
- Murphy, J. M. (1991). Oral communication in TESOL: Integrating speaking, listening, and pronunciation. *TESOL Quarterly*, 52(1), 51-73.
- Newman, R. S. (1984). Achievement and self-evaluations in mathematic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857-873.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Pan, W. (2003). *English pronunciation self-concept: Its effects on Chinese-speaking EFL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uangdong, China.
- Pellegrino, V. A. (2005). *Study abroad and second language use: Constructing the self*.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rdegna, V. G., Lee, J. H., & Kusey, C.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er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pronunciation (LAMP) inventory. *System*, 47, 162-175.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 of test sco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havelson, R. J., & Stanton, G. C. (2010).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kaalvik, E. M., & Hagtvet, K. A. (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An analysis of causal predominance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92-307.
- Strein, W. (1993). Advances in research on academic-self concept: Implication for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Review*, 22, 273-284.
- Tang, X., Zhang, S., Li, Y., & Zhao, M. (2013). Study on correlation of English Pronunciation self-concept to English learn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6(4), 74-79.
- Thomson, R. I., & Derwing, T. M. (2015). The effectiveness of L2 pronunciation instruction: A narrative review. *Applied Linguistics*, 36(3), 326-344.
- Ushioda, E. (2011a).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self and identity: Cur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3), 199-210.
- Ushioda, E. (2011b). Motivating learners to speak as themselves. In G. Murray, X.

Gao & T. Lamb (Eds.), *Identity, motivation and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pp. 11-24).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Wang, C. (2004). English pronunciation self-concept and EFL learning. *Foreign Language World*, 5, 62-67.

Wang, M. (2013).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elf-concept and significant other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8(3), 1406-1411.

Williams, M. D., & Burden, R. L. (1999). Students' developing conceptions of themselves as language learners. *Modern Language Journal*, 83(2), 193-201.

Yoshida, R. (2013). Learners' self-concept and use of the targe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s. *System*, 41, 935-951.

Zhu, X. (2005). The relationship of global English self-concept, English pronunciation self-concept and the English classroom anxie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 61-65.

부록

학문자아개념, 영어 자아개념 검사지

◆ 아래 문장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				
2	나는 학교 성적에는 자신이 있다.				
3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난 것 같다.				
4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느낀다.				
5	나는 상급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6	나는 공부로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다.				
7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다.				
9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10	나는 앞으로의 시험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11	나는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				
12	나는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편이다.				
13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14	나는 시험이라면 자신이 없다.				
15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16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17	나는 공부를 잘하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많이 듣는다.				

18	나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도 잘 해낼 수 있다.
19	나는 모든 과목을 잘 해낼 수 있다.
20	나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1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 과목을 더 잘한다.
22	나는 영어 과목 내용을 빨리 배운다.
23	나는 영어 과목이 쉽다.
24	나는 영어 시간에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25	나는 영어 과목 내용을 쉽게 배운다.
26	나는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27	나는 영어 시간에 잘하는 것에 만족한다.
28	나는 항상 영어 과목을 잘해왔다.
29	나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다.
30	나는 영어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듣는다.
31	나는 영어를 듣는 것이 쉽다.
32	나는 친구들보다 영어 듣기를 더 잘한다.
33	나는 영어 듣기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34	나는 영어 듣기에 자신 있다.
35	나는 영어로 듣고 빨리 이해한다.
36	나는 영어 말하기가 쉽다.
37	나는 친구들보다 영어 말하기를 더 잘한다.
38	나는 영어 말하기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39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40	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41	나는 영어 문장을 읽는 것이 쉽다.
42	나는 친구들보다 영어 읽기를 더 잘한다.
43	나는 영어 읽기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44	나는 영어로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한다.
45	나는 영어로 소리 내어 읽기를 잘할 수 있다.
46	나는 영어 발음이 쉽다.
47	나는 친구들보다 영어 발음을 더 잘한다.
48	나는 발음을 빨리 배운다.
49	나는 내 영어 발음에 만족한다.
50	나는 영어 발음을 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51	영어 공부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써 주세요.
52	영어로 말하거나 읽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써 주세요.
53	앞으로(상급학교에서) 내 영어 공부 실력은 어떻게 예상이나 바람을 써 주세요.
54	영어 공부와 관련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써 주세요.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Primary

160 영어교과교육 제14권 3호

류혜선

서울고산초등학교

152-08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6

Tel: (02) 2617-0591

Email: forjesus98@naver.com

정현성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361-89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554

Email: hchung@knue.ac.kr

Received June 17, 2015

Revised July 30, 2015

Accepted August 5, 2015